



“우리는 하나!”

동국 100주년 서포터즈 워크숍에 참석한 학생들이 힘차게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로스쿨 유치를 위한 교수 및 동문간담회’ 개최 법대 유력동문 모여 의견 교환해



이연택 전 노동부 장관, 임덕규 전 국회의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등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법대 동문들이 우리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유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27일 오후 6시 상록원 VIP실에서 열린 ‘로스쿨 유치를 위한 교수 및 동문 간담회’에서는 법대 교수들과 동문들이 참석, 로스쿨 설립 추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연택 법대동문회장은 “로스쿨 도입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법대 내부의 대화합을 통해 로스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로스쿨 도입을 위한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우리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송석구 총동문회장대행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인가 기준의 충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단과 총장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측은 우수 교수를 채용과 함께 시설 확충에도 파격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에 반해 김희옥 법무차관은 “동국대학교는 종합대학인 만큼, 법대라는 한 단계 이상의 발전보다는 다른 단과대와의 종합적인 발전과 전반적인 수준향상이 더 필요하다”면서 “현재 우리학교가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며 근거없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한편 지난해 8월에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설립추진단에서는 회의를 통해 법대 발전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계산고사학과를 만해관 4층으로 이전하는 등 모든 법대 시설물을 만해관으로 이전시키고 있으며, 16명인 전임교수를 연내 28명까지 충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학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법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시작 박은철 동문 첫 참여

우리학교 대외협력실(실장=윤동규)은 졸업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5만원 또는 3만원을 매달 납부해, 5만원의 경우 60회(5년), 3만원의 경우 100회(8년)로 총 300만 원을 약정해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부프로젝트다. 여기에 참여한 후원자들은 후학들과 모교에 기억되도록 건학 100주년 기념 조형물에 이름을 새겨 보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박은철(무역 79살) 동문이 첫 참여자가 됐다. ‘동국타임즈’에 실린 관련글을 보고 참여하게 된 그는 “한꺼번에 큰 돈이 아닌 작은 정성들의 모임으로, 학과 후배들에 그치지 않고 학교 전체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또한 “많은 동문들이 건학 100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후배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2대 노동조합 최기석·고봉기·변민우 조 당선

지난달 30일 열린 직노동조합 제1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위원장=최기석(연구개발팀) △부위원장=고봉기(시설관리팀), 변민우(직노동조합) 조가 114표로 총 62.98%의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재직조합원 194명 중 181명이 투표해 9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전 직노동조합 집행부의 총사퇴로 인해 치러졌고,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거에 앞서 임기 관련 규약개정 투표가 시행됐다. 그 결과, 총 134표 중 132표를 얻어 제12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포함해 총 2년 5개월로, 2008년 8월까지 재임한다. ▷관련인터뷰 2면

오늘부터 이틀간 수강취소·학점포기 실시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강좌 취소할 수 있다. 수강과목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소신청서는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비치돼 있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

수강과목을 취소한 학생은 다른 교과목에 대한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강과목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단, 4학년의 경우 제한이 3학점 미만이다. 취소과목은 해당학기만 성적통지표에 표기된다.

또한 오늘부터 내일까지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점포기제는 등록과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에 한해서 가능하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과목이다. 따라서 2006학년도 학업이수 가이드에 명시된 교과목은 학점포기가 불가능하다. 단, 핵심교양에 개설돼 있는 ‘동서철학의 이해’와 ‘연극의 이해’는 2006학년도 이전에 수강한 학생들은 이제 수강신청이 불가능해 학점포기가 가능하다.

학점포기는 과목수나 학점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며, 신청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서 이뤄진다.

본사사령

◇ 임수습기자

- ▲ 류경화(사과대1)
- ▲ 손주희(사과대1)
- ▲ 문서영(사과대1)
- ▲ 양열매(사과대1)
- ▲ 김나리(경영대1)
- ▲ 최미혜(경영대1)
- ▲ 이송이(공과대 전기공학1)
- ▲ 이윤재(공과대 전기공학1)

- 이상 4월 3일자

등록금 협의 ‘난항’

3차 원탁회의에서 학생회 요구사항 전달 ... 의견차 좁히지 못해 학생총회 개최는 총운위 논의 후 결정될 듯

학교 측과 총학생회(회장=정성전·경영4, 이하 총학)가 지난 27일 본관 정책회의실에서 3차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학교 측 관계자로 조의연 학생처장, 심익섭 기획처장, 김윤길 기획예산팀장 등 6명이 참여했고, 총학 측 관계자로 우영진 부총학생회장장과 5개 단과대학생회장이 참여했다.

원탁 회의에서 총학은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총학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총학은 우리학교의 예·결산 자료, 신문, 타 학교의 예·결산 자료를 출처로 조사한 결과를 통해 학교 측이 제시한 등록금 인상의 주요요인인 교원고수확충(45억 책정), 100주년 행사(62억 책정), 기숙사 공학관 건립(총 건설비 600억원 책정)에 대해 △실질적 교원 확충 대비 △100주년 사업 관련 소모성 사업

에 집중 투자 △등록금 70억원 축소 책정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재정상의 문제점으로는 △2005년 11월 한의대학 등록금 2% 환불 △등록금 순위 중상위권으로 상승 △10% 삭감을 약속한 일반 관리비 3% 인상 △재단전입금 수년간 전무와 일산불교병원 적자를 지적했다. 총학은 학교 측에 △교육부 지침에 따른 모든 회계의 산출근거 공개 △2006학년도 등록금 동결 △예산재편성 △산학협력단 회계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그와 함께 실현실습비 공개, 장학금 기준안화 등의 학자요구안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총학이 요구한 모든 회계의 산출근거공개에 대해 “우리 학교가 의도적으로 공개를 안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교가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준비되는 대로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학협력단 회계내역 공개에 대해 “산학협력단 연구처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되었다”고 밝혔다. 총학 측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등록금 신문 발행, 단체 플랑 등을 계획 중”이라 밝혔다.

한편 총학은 지난 29일 오후 6시에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장, 과 학생회장, 학생자치기구장이 의논하는 자리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전체 학생의 20%가 참여하면 성사된다는 학생총회의 관례에 따라 전학대회에 137명이 참여해 성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1/4분기 총학생회 사업 보

고 및 계획을 발표하고, △등록금 부당성 설명 △학생총회 △여학생위원회 신설을 안건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통해 오는 4일로 예정했던 학생총회의 개최여부도 참여 학생들의 거수로 결정하기로 했다. 참여 학생 103명의 거수 결과 45명이 총회 개최에 찬성, 53명이 총회개최에 반대했다. 이에 정성전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개최에 관해 총학생회운영위원회 논의 후 최종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여학생위원회 신설에 관해서도 논의하려고 했으나, 학생총회 개최여부 결정 이후 40여명의 학생들만 자리에 남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금주의 동국인

현대문학상 수상 황종연 교수



“열심히 읽고 해석과 평가의 논리를 세우며 긴장의 연속에서 살고 있다.”

문학평론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황종연(국어국문학)교수. 줄곧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이 자연스레 묻어난다. 겉보기에는 사뭇 근엄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간간히 엿볼 수 있는 인자한 미소가 오히려 더 인간

적으로 다가온다.

황 교수는 문학비평가, 교양교육원장, 교수, 문학동네 편집위원과 더불어 논문·연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때문에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풍부한 영감을 얻으며, 직업이나 활동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고은의 ‘만인보’를 주제로 제51회 현대문학상 비평부문에서 수상했다. 이에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권위 있는 문학상을 받아 기쁘게 생각하고 평론가로서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소감을 밝힌다. 만인보를 통해서 현대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걸맞게 민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싶었다고.

또한 그는 평소 수업에서 독서를 통한 깊이 있는 수업을 유도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몇 가지 당부사항을 빼놓지 않는다. “먼저 학생들이 글을 읽는 체질이 자기성찰에 귀중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글을 통해 능동적으로 세계 구성 훈련을 하기를 바란다”며 “많이 나아가고 있지 만 강의실 안팎에서 학생들이 항상 책에 대해 이야기·토론할 것”을 덧붙인다.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와중에도 평론 활동을 꾸준히 해왔지만 그간 충분히 쓰지 못한 글을 앞으로는 더 많이 쓸 계획이라고 한다. 날카로운 이성으로 상상된 허구를 논 의함으로써 계속해서 생동감 있는 비평의 세계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모든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금주의 동국인’을 추천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국 100년, 맑은소리 좋은생각

저는 선배님들께 전화로 모교 100주년 소식을 전하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의 100번째 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 그렇지!”하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지만 별 관심 없다며 전화를 끊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졸업생들이 모교에 관심이 없고 모교를 부끄러워한다면 앞으로 우리학교는 영원히 일류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졸업생들이 많으면 맑을수록 조만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사학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동국대학교가 최고의 학교가 되었을 때, 학교에 관심 없으시다는 선배님까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중수
사과대 신방4



동국 100년, 맑은 소리 좋은 생각 원고모집

대상 학생,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등 모든 동국 가족
내용 건학 100주년을 자축하며, 동국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국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맑은 소리 좋은 생각의 기획 취지에 어울리는 내용

형식 자유 분량 100글자 안팎 원고 마감 2006년 4월 30일까지(1차 마감)
원고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자우편) dgupress@dongguk.edu (교내네트워크) 핸드오피스 전자우편 수신 : 동대신문사 부국장 권주영

원고료와 부상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잘 된 원고를 골라 총 상금 100만원(감동상 50만원, 자랑상 30만원, 도전상 20만원) * 기타 문의사항은 동대신문사(☎02-2260-3491)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대학 학점교류 대체적 이용 저조

우리학교, 서울대 등 12개 대학과 학점교류 가능해 ...

학생들 참여 뒷받침 되는 학점교류제 활성화 기대

우리학교와 서울대학교가 지난 달 27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 겨울방학 중 경희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충북대 등 8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학교는 기존의 건국대, 한국외대, 국민대 3개 대학에서 12개 대학으로 늘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위의 학술교류제를 맺고 있는 12개 대학에서 강의를 신청해 듣고 학점을 받는 학점교류제를 이용할 수 있다. 상대 대학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학교에서 수강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재학 중 2개 학기까지 교류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고, 이는 2학기 이상 마친 학생에 한해서 가능하다.

지난 겨울방학부터 학술교류협정을 맺은 9개 대학은 오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학점교류제를 이용할 수 있고, 한국외대, 건국대와는

이미 진행 중이다. 국민대와는 지난해 2학기 중 체결해 아직까지 이용은 없다.

2005년 겨울학기에 건국대 학생이 우리학교로 온 경우는 5명 이하이고, 우리학교 학생이 건국대 가서 수업을 받는 일은 없다. 상대적으로 교류를 맺은지 오래된 한국외대의 경우, 같은 시기 우리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한국외대 학생은 40~50명, 우리학교에서 한국의대로 간 경우는 15명이다. 정규학기의 경우 우리학교가 한국외대에 수업을 들은 것은 한 학기에 3명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이용이 저조한 편이다.

우리학교는 국내·외의 여러 대학들과 학점교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외에 비해 국내대학과의 교류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교류 대학의 수가 적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실제로 학점교류제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낮선 성격적

계와 다른 학교에서의 교우관계 때문에 학점교류제에 부담을 느껴서"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국내대학과의 학점교류제 이용이 저조한 것은 비단 우리학교 뿐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착안한 일명 '신촌리그'라는 학점교류제를 만들었다. 당시 각종 매체에서 학을 늘리고 질적인 향상을 꾀해 학생들이 학점교류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점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공동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학과 간 교류같은 세밀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펼쳐나 가려고 한다. 양쪽 대학의 장점을 잘 살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학교의 학점교류제가 학생들의 참여 아래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강의환경으로 충분히 만족해 굳이 다른 학교에 가 수업을 들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점교류제는 타학교 학생들의 문화와 교육환경을 접할 수 있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없는 학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

이에 우리학교는 앞으로 교류대학을 늘리고 질적인 향상을 꾀해 학생들이 학점교류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점교류 활성화의 기반을 닦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공동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학과 간 교류같은 세밀한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펼쳐나 가려고 한다. 양쪽 대학의 장점을 잘 살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학교의 학점교류제가 학생들의 참여 아래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호전무대

습관성 난청

○...예술대 학생들은 난청을 앓고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문화관 내에서 선배를 볼 때마다 이름과 기수를 대며 인사하는 모학과 학생들의 우렁찬 목소리 때문이라고.

선·후배 간의 인사 자체는 좋지만, 다른 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도 있는 공공장소에서는 큰 소리를 자제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호전무대자 월, "안녕하십니까! 감쪽놀라학과 귀별기 김동국입니다!!!"

대출 '지정' 도서

○...도서관 지정도서는 허울뿐이라는데.

알아본 즉, 강좌마다 교수님이 지정해 중앙도서관에 신청하는 도서관 지정도서가, 도서관에서는 '대출금지'라고 쓰지만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 것들이 있다고.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때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든 지정도서제도인 만큼, 학교 측은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호전무대자 월, "어긋난 시도 한 번에 상처받는 전체수강생!!!"

유니섹스

○...우리 학교 해화관에는 남녀 공용화장실이 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해화관 남자 화장실을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남학생들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건물에 화장실 구조가 복잡해 학생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예티켓은 지켜서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호전무대자 월, "화장실의 성별표시는 단지 장식에 불과할 뿐!!!"

공부지상주의

○... 학생들은 건학 100주년을 축하하기 힘들다는데.

사범대의 한 전공수업시간, 교수가 중간시험을 개교기념일 바로 다음인 5월 9일에 잡아 학생들의 원성을 산 것이라고.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가장 중요한 일인 하지만, 정해진 시험기간을 보름이상 비켜가 축제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날짜선정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호전무대자 월, "행복이 학점순은 아니잖아요!!!"

제12대 노동조합 당선자 인터뷰

노조 존재목적 부합할 것

여러 중요 현안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노동조합 제12대 집행부에 최기석·고봉기·변민우 조가 당선됐다. 이에 그들을 만나 당선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당선 소감은.
= 출마했을 때 예상 외로 경선으로 결정돼, 투표일까지 열흘 정도는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 몸도 마음도 피로했다.

그러나 많은 조합원이 우리를 믿고 맡긴 자리이므로, 행정전문화와 직원 복지후생이라는 직원노동조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올해는 대내외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대학평의회 구성', '총장 선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저지 투쟁' 등 여러 가지 큰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협의해 점차 노력할 것이다.

필요하다. 조합원을 비롯해 교수회, 학생대표 등 학교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것이다.

모든 동국 구성원들이 어느 쪽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 구성원들의 참여가 뒷받침되는 민주적인 동국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 앞으로의 계획은.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통한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학교발전에 보탬이 되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데 힘쓰겠다.

또한 노조위원장을 교무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교수행정보지속을 축소하며 대학운영에 직원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해 행정전문성 및 직원 위상이 강화되도록 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약으로 많은 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성실히 지켜서 거짓말 하지 않는 노조 집행부가 되겠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아일랜드 문화탐방 공개강좌 열려

지난 달 30일 해화관 G207에서 아일랜드 문화탐방 공개강좌가 있었다. 이는 국제교육원(원장=김영민·영어영문학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문화탐방' 강좌로 스티븐 맥교가 강의를 맡았다.

아일랜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수업은 아일랜드의 역사, 문학, 예술, 스포츠, 현대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30여 학생이 참석한 이 강좌에서 한태승(전기공4) 군은 "영어공부와 다른 문화 공부를 동시에 습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구현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징계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강 교수가 강연하지 않는다는 전체학내에서 강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철(독문4) 집행대책위원장은 "강정구 교수의 천막강연을 불법이라 결정한 것을 철회시키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지난 달 강 교수에게 공문을 보내 천막강연을 불법이라 정해놓고, 사람들이 불법이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막강연을 실내로 옮기는 것은 의미가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축구부, 초당대 2:1로 이겨

우리학교 축구부는 지난 1일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열린 2006 월드컵코리아 전국준계대학축구연맹전 겸 대학상비군선발대회에서 초당대를 2:1로 이기고 승리했다.

이번 전국준계대학 축구 연맹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결승전은 오는 17일 열린 예정이다.

김용길 동문 장학금 기탁

지난 달 29일 법대학장실에서 법과대 김용길(법65졸) 동문 장학 수여식이 있었다. 김 동문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돕고 다른 동문 및 교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우석(법4)군, 박동준(법4)군이 각 125만원씩 수여했다. 대상자는 우수 장학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법대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대재학생 중에서 선정됐다. 2학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며, 김 동문은 앞으로 매년 500만원씩 기탁할 예정이다. 김우석 군은 "격려와 재적으로 받아들여져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어렸을 적에는" ...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달 30일 본관 중강당에서 '청년의 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석해 중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동약로 줄다리기

"어! 오늘 팔정도에서 임종인 의원 천막강연이 있나봐?"

"저기봐. 학생들이 본관 앞에 시위하고 있는데"

지난달 30일 본관 앞에서는 이명박 서울

시장의 강연 시작 전 강정구 교수 천막강연 준비 팀 학생들이 "천막강연을 강행하면 징계하겠다면서 황제 테니스 논란을 빚고 있는 이명박 시장 강연을 추진한 학교를 규탄 한다"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천막강연 진행과 관련해 학생처 관계자가 천막강연 준비팀 대표자를 불러 "30일 팔정도에서 천막강연을 강행할 시에는 강연 천막을 걷어 내던지 학생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학생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준비팀이 시설사용 허가도 받지 않았고 팔정도에서 강연을 강행할시 보수단체와의 마찰로 건학

이었다"고 말했다.

학교 내 여론은 강정구 교수의 천막강연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느 한 쪽의 입장에 간과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 측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한 대처와 판단을 지양하고,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 공간이 학생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학내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계신청안내

이 땅에 찬연한 빛을 선물하는 사람이 되고 동국의 건학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동국인 가족을 수계식(법회)에 초대합니다.

계를 받는 것은 첫째 참사발(佛子 불자)이 되는 것이며, 둘째 불보살 남전에 萬德(만덕)의 근원을 심는 것이며, 셋째 불법의 인연으로 무명의 업장을 소멸하고 밝은 지혜로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무량보덕의 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계는 한번 받기만하면 그 受戒(수계)된 선근공덕이 영원히 영속한다'고 하였듯이 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선근공덕과 지혜의 등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수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수계신청서를 정각원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일시 : 2006. 4. 28(금) 오후 4시

수계장소 : 본관 중강당

수 계 사 : 전계사 크스님

대 상 : 교·직원, 학생, 일반인

접수기간 : 2006. 3. 27(월) ~ 4. 21(금)

문의사항 : 정각원 사무실
(전화 2260-3016, 팩스 2260-3744, http://jeongguk.dongguk.edu)

정 각 원

4.19혁명 기념 제37회 동국인 등산대회

- 등산도 하고 해외연수도 가고! -

1. 일 시 : 2006년 4월 14일(금) 09:00~15:00

2. 장 소 : 국립4.19묘지(추모식), 북한산(등산대회)
* 집결 : 오전 9시 00분까지 국립4.19묘지 내 광장 (지하철 4호선 수유역 5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운영)

3. 참가대상 : 모든 동국가족

4. 행사일정

행사내용	장소	시간	유의사항
4.19혁명기념 추모식	국립4.19묘지 내 기념탑	추모식 : 10:00~10:20	09:50분 참가자 전원 기념탑 앞으로 이동하여 합동분향
개회식 및 출발	국립4.19묘지 내 광장	개회식 : 10:20~10:30 출 발 : 10:30부터	시간 엄수
중식 및 하산	대동문	중 식 : 12:00~13:30 하 산 : 13:30부터	지나친 음주 절대 삼가. 쓰레기 개인별 수거 후 하산

5. 팀 구성
가. 4인 1조 : 학(부)과, 동아리, 동문회, 대학원, 교직원 등 자유롭게 구성 (재학생팀 : 해외연수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제출 - 심사점수 반영)
* 해외연수 계획서 접수 : 4.3 (월) ~ 4.10 (월), 본관 3층 학생복지실
나. 학과 단체팀 : 40명 이상으로 구성
다. 동아리 단체팀 : 15명 이상으로 구성

6. 시 상 :
가. 4인 1조팀
1) 세계로 가는 동국팀 : 총 9개 재학생팀 선발 (해외연수 비용 200만원 지원)
2) 알찬 문화생활팀 : 총 8개팀 선발 (문화상품권 10만원권 증정)
나. 단체팀 :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5팀

7. 접수기간 : 2006. 4. 3.(월) ~ 4. 11(화) 09:00 ~ 17:00.

8. 접 수 처
가. 학과단체팀 : 각 단과대학 행정실
나. 4인1조팀, 동아리단체팀 : 학생처 학생복지실(본관)

9. 공지사항
가. 추모식 및 등산대회 행사 시 경건한 자세로 임하며, 4.19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함.
나. 4.19혁명 기념 추모식은 행사 참가자 전원의 합동 분향으로 진행함.
다. 우천 시에도 행사는 진행됨.(우산 또는 우의는 개별 준비)
라. 등산대회 시 출발, 중식시간 등을 엄수함.
마. 도시락과 쓰레기 봉투는 각자 준비
바. 시상식은 별도로 진행되며 일시 및 장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됩니다.
사. 참가자에게는 건학 100주년 기념품(합색)이 지급됩니다.

* 4.19혁명 기념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학생복지실(☎ 226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을 바라보며

개발과 환경 ... 상생의 길은 가능한가

1996년 7월, '제2의 시화호'를 우려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공사가 5년이나 진척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이후 환경문제의 대표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많은 논란과 생명가치의 화두를 던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유무면 매립면허, 사업시행인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논란이 되어 온 새만금 간척사업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 했다.

개발앞에 무너지는 환경

수천년 동안 동경강·만경강이 만들어 낸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끊는 33km의 마지막 방조제 2.7km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경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라북도와의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와 일부 언론에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만금 공사가 중단되어 자연되면서 발생한 총손실이 7,500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였다. 대법원 판



논단

박정운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결은 방조제 앞 농성과 해상시위를 이끌었던 새만금 지역 연안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피해보상으로 유도하며 중단되었고, 10년 동안 새만금간척사업 반대운동을 이끌었던 환경사회단체들은 법리해석에 그친 대법원 판결의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들을 마련하고 있다.

개발로 예상되는 문제들

시화호의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듯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된다고 해서 새만금의 문제가 끝났거나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개발로 인한 더 많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화호의 경우, 답수호의 오염 문제로 인해 해수유통을 실시하였지만, 2000년 이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조력발전소 건설, 갈대습지

공원 등 친환경개발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역시, 만경강 수역의 오염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채 벌써부터 내부 토지이용계획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고, 인근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붕괴를 새만금 갯벌을 찾아 날아오는 30만 마리 이상의 도요물떼새들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으며, 갯벌에서 맨손 어업을 하던 어민들의 생계가 마막하게 되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30년 후에야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전례의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는 이 간척사업에 대해 생명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 하는 우리들이 방조제 33km를 완공하였으니 새만금 간척사업을 인정하고, 곧 농지가 아닌 용도변경을 하게 될 이 간척사업이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물론 대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의 취소 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의미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즉, 이번 재판은 행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상 영향으로 사업을 계속 시행함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은 지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운동을 통해 밝혀낸 사실이다.

보다 신중한 논의 필요

그러하기에 새만금 간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 특별법'에 앞서,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 대한 미련에 앞서, 앞으로 30년 후의 새만금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완공된 방조제로 무리하게 갯벌의 숨통을 끊지 말고,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 갯벌을 조금이라도 살려놓고 새만금의 희망을 찾는 논의를 할 때만이 서로 상생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사설

동국백년 쉼포터스의 자부심

학교의 발전이 재정 투자와 정비례한다는 말은 상식이다. 등록금 의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전은 요원하다. 등록금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눈덩이처럼 커져 간다.

교육 소비자가 시장을 의면하는 일이 이제 자연스러워진다. 좋은 학생들은 보다 조건이 나은 학교를 찾아 입학원서를 낼 것이다. 우리 재단이 경쟁대학들보다 학교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이 지속되면 발전은커녕 현상유지도 힘들다. 백주년을 맞아도 등록금 의존율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이런 와중에도 희망의 꿈을 가지게 하는 씩들은 아주 많다. 아이비리그대학 장학 프로그램 신설, 넥스트 사업 1위 선정, 각종 연구지표의 개선 등등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할 소식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발전하지 못하는 '타령'만 늘어놓고 있느니,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씩을 열심히 바라보는 일이 지금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백주년 쉼포터스 교육이다.

지난 주말 용인의 한화콘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동국백년 쉼포터스 교육이 있었다. 3대 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예비 합격한 학생들 62명이 참가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여러 학과의 남녀학생들이 풀고루 참가한 이번 교육은 동국 백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이를 통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15시간 이상 집중 교육을 받으면서 각종 예절과 공중제 소속감, 그리고 애교심을 고양시키는 기회를 가졌다. 백주년을 준비하는 쉼포터스여사인지 저마다 기대도 크고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자신들이 제1기생이라는 점에서 스스로 설레기도 하고 자축하기도 했다.

1박 2일 동안의 일정을 뼈대스럽게 보내면서 우리 쉼포터스들은 무얼 생각했는가. 이들은 본격 토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백주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백주년을 지난 100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철저히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쉼포터스들에게서 동국대학교의 희망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또한 재정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부심'이라는 소중한 재산이 이들의 뜨거운 가슴 속에 있는 걸 보았다. 그렇게, 아주 서서히,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고 있었다.

대학구조조정 의 현 주소 어떠한가

교육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 ... 교수·학생권리 보호 힘써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지난달 27일 '한국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서울대 기숙사에서 특강을 진행하면서 "대학규모 축소 없이는 구태의연한 교육방식을 탈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한국 대학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대학규모 축소가 대학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고 정운 총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대학의 발전과 효율적 경영을 목적으로 대학 규모의 축소를 통해 교수 1인당 학생의 비율과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대학 구조조정을 각 대학에 권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많은 대학들이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명목으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의 인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자체를 폐지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지난해 4월 국제학과를 폐지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시스템과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봤을 때 점차적으로 대학의 규모를 축소해나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학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대학구조조정의 특성상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경쟁력이 약화돼 폐지된 학과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학교가 학과를 폐지할 때 학생들과의 토론과 설명의 자리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통보하고 추진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영남대의 경우 학과 폐지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무용학 전공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과 폐지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 총장을 억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원 충족율을 높지 않은 학교의 경우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과를 신설하고, 경쟁력이 생기지 않으면 학과 명칭을 바꾸거나 다시 학과를 폐지하는 등의 일이 반복돼 폐지학과 학생들의 항의를 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강좌는 증설되기 마련이어서 폐강의 염려가 없지만, 소위 비인기학과 수업으로 꼽히는 수업들은 한강의 당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10명을 넘지 않아 폐강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학금 수혜기준도 타 학과에 비해 인원이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학칙에 따라 타 학과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폐지학과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대학환경의 개선을 위해 대학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앞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학생과 교수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업의 다양성을 보장해 대학교육의 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인)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김주관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정길상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김지혜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국 건학100주년!

새로운 동국역사의 창조
1%의 정성이면
100% 이루어집니다.

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동국대학교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과 21세기 비전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전하는 리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리더 — 이들이 바로 동국의 희망입니다. 후배사랑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 발전기금 참여 및 문의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
(02-2260-3300, 3794~5)

기부참여방법 - 월납, 분할납부로 큰 부담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월3만원×100회(8년) 약정시 = 3,000,000원 월5만원×60회(5년) 약정시 = 3,000,000원 - 기타 금액, 일시납부등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예금주 : 동국대학교 * 조흥은행 313-03-002943 * 농협 360-17-003822 * 국민은행 068-01-0373-353 * 제일은행 107-10-119210	■ 자동이체(CMS)납부 CMS는 은행에 직접가시지 않아도 약정하신 분의 지정계좌에서 학교로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매월1일, 18일중 택일) ▷ 신청 :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실(전화 02-2260-3300, 3794~5)	등록금한번 더 내기에 참여하시면... 후원해주신 분의 동국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받들어 아름다운 이름으로 후학들과 모교에 영구히 기억되도록 건학100주년 기념조형물에 새겨 보존하겠습니다.
--	--	---	---

교육봉사활동의 현장을 찾아서

'가르침=사랑' 공식을 함께 실천해요



모르는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는 형이 있어 든든해요.



형, 누나들과의 즐거운 공부시간.



독일 통일과정 토론시간. 지루하지만은 않죠.

고아로 남겨진 아이들의 집터인 '삼동 소년촌'을 매주 2회씩 찾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교육봉사 동아리 ELF(Education Love Friendship). 대학생의 멘토링 현장을 직접 담아내고자 봉사 활동을 동행취재 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설레는 마음으로 동아리 방으로 내려갔다.

오후 6시, 십여 명의 ELF학생들과 함께 충무로 역으로 향했다. 40여분 간 전철을 타고 봉사활동 장소가 위치한 월드컵경기장역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걸음을 재촉하는 ELF학생들을 따라가다보니 '삼동소년촌'이라 쓰여진 팻말이 보였다. 소년촌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눈에 띄었다.

"안에 들어가면 다들 '선생님'으로 호칭해야 하는 거 아시죠? 오늘도 수고하세요"

학생들은 소년촌으로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공부방으로 들어선다. 이제 막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려온 아이들이 공부방은 북적거리다. 아이들이 모두 모이고 본격

적인 공부시간이 시작됐다.

"현민아, 오늘 어디 공부할 차례지?" 이제 막 사춘기를 지난 현민이는 공부하기가 싫은 모양이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일에 간섭하기 시작한다. 혹시나 취재로 인해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 현민이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지만 현민이는 "네네~" 대답만 잘 하고 여전히 딴짓이다.

독일의 통일과정에 대해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철(건축공과2)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아이들에게 "형에게 배우면서 성적은 올랐냐"고 묻자 이 군 옆에 있던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성적이 올랐다고 아우성이다.

이번이 세번째 방문이라는 허윤민(시공1)양은 "처음엔 아이들이 말도 안하고, 마음을 열지 않아 힘들었는데 요즘은 말도 잘 하고, 장난도 치면서 재밌게 하고 있다"며 웃는다. 테이블에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앉아 한자와 영어, 수학,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 학습 자료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학생들과 아이들이 어울리는 곳의 모습을 담고자, 셔터를 누르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찰나 갑자기 아이를 가르치던 학생이 "저기요, 죄송하지만 아이가 공부하다가 플래쉬 빛 때문에 계속 놀라거든요. 조금만 신경써주세요"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20살이 갓 지난 대학생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 안에서 그들은 학생이 아닌 '선생님'이고, 그 곳은 신성한 '교실'임을 기자가 잠시 깜빡하고 말았다. 깜짝 놀란 눈으로 기자를 바라보던 아이는 다시 공부에 집중하고, 기자는 야속하게 터져대던 플래쉬와 카메라를 뒤로 감춘 채 살며시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취재 시작할 때부터 사진 찍는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아이는 어느새 공부하던 무리를 벗어나 봉사 활동도 잘 하고, 장난도 치면서 재밌게 하고 있다"며 웃는다. 테이블에 아이들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앉아 한자와 영어, 수학, 토론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직접 학습 자료를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1년 넘게 이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홍연숙(교육2) 양은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참 착하다"며 "꾸준히 아이들을 찾으니 처음에는 눈도 안 마주치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내 이름도 알고 있다"며 보람을 얘기한다.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고, 아이들은 나가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다 나간 공부방에서 학생들은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출석체크를 하고, 오늘 진도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발표하면서, 한 시간 동안의 봉사활동 시간을 마감했다.

'가르침'은 단순히 무언가를 알려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취재를 마치고 소년촌을 나오면서 사랑이 가득 담긴 그들의 모습에 쓸쓸한 날씨에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훈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김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대학 곳곳에 스며든 멘토링 열풍

학습지도부터 문화·체험 활동 등 다양한 멘토프로그램 제공

달고 싶은 누군가를 떠올려보라. 대개 우리는 마음속으로 역할모델을 한 명쯤 품고 있기 마련이다. 역할모델은 그 자체 만으로도 삶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준다.

하지만 '멘토(mentor)'는 역할모델이자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멘토는 구성원 '멘티(mentee)'에게 지적·정서적인 지원과 함께 개인적인 후원자·교사·코치·상담자 역할도 하는데, 이를 '멘토링(mentoring)'이라 부른다.

이번 달부터는 서울대 학생들이 무료 과외 지도에 나선다. 서울대에서 시범 시행되는 '대학생 멘토링제도'는 정부·지자체·대학이 손잡은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멘토로 선정된 학생들은 관악·동작구의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상대로 △기초학습지도 △취

미 및 문화·체험 활동 △인성 및 진로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 외에도 현재 대학에는 멘토링이 전반적으로 확산돼있다.

연세대는 '독수리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튜터(tutor·교육자)'와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 '튜티(tutee·학습자)'가 연결돼 함께 공부하는 협동학습프로그램이다. 튜터 1명당 2-4명의 튜티가 연결되며 △간담회 △프리젠테이션 △일지제출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화여대 역시 '취업멘토링' 수업을 개설해 학생들이 사회로 원활하게 진출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이화인닷컴의 '선배자매맺기' 멘토링 프로그램은 선배가 후배에게 온라인상의 멘토클럽을 통해 1:1로 상담해 주는 멘토링 서비스이다.

속명여대의 경우 멘토와 멘티로 이루어진 소그룹 스터디 모임인 '멘토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해당분야의 멘토가 8-10명의 멘티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 역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관리실은 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통해 △학부생 △학원생 △교직원을 아우르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사담당자 △학생상담센터 상담원 △여학생실 담당자가 도움을 주며, 기본적으로 전 구성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오픈멘토링이 마련된다.

또한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스터디그룹)' 지원을 준비 중이다. 튜터링 형식으로 10-20개의 팀을 선정해서 발표회 등 한 학기 4회 정도의 중간점검을 하며 성

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박세훈 과장은 "동기부여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명확한취기 조성하고 자기주도형 학습 유도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대학가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멘토링은 선배후배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해주고 멘토-멘티 상호간에 쌍방향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이 사실이다.

꾸준한 타대학 벤치마킹, 활발한 홍보, 온·오프라인상 병행 및 오프라인 활동 지향, 지속적인 관리 등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한국불교학회 춘계 학술대회

주제 : 계율의 현대적 조명

- 일시 : 2006년 4월 14일(금요일)
- 장소 : 동국대 학술관 제3세미나실 및 K동 202호 (본 학술대회는 동국100주년기념특별사업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 기초 강연 및 기초 발표 10:00-12:00
좌장 : 김선근(동국대) / 통역 : 양은용(원광대)
기초강연 : 불교에서의戒와律의 의미
연사 : 사사키 시즈카(佐佐木規, 日本 京都 花園大學)

- ◎ 중식 : 12:00-13:00
- ◎ 제1분과 13:00-17:00 (제3세미나실)

- 제1발표 : 울장성립의 배경
좌장 : 김경집(동국대)
발표 : 목정배(동국대 명예교수)
토론 : 신성현(동국대)
- 제2발표 : 남북방계율의 상호보완성의 탐색
좌장 : 김경집(동국대)
발표 : 마성스님(빨리문헌연구소장)
토론 : 원철스님(조계종 신도국장)
- 제3발표 : 밀교 계율의 현대적 조명
좌장 : 김치은(동국대)
발표 : 김영덕(위덕대)
토론 : 정성준(동국대)
- 제4발표 : 승가 '七不衰退法'을 통해서 본 한국불교의 현실

-- 90년대 조계종단 사태와 제도 개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좌장 : 고영섭(동국대)
발표 : 덕산스님(불교교단사 연구소)
토론 : 조준호(동국대)
- 제5발표 : 계율정신을 현대윤리에 어떻게 살릴 것인가?
좌장 : 고영섭(동국대)
발표 : 허남결(동국대)
토론 : 이덕진(참원전문대학)

- ◎ 제2분과 13:00-17:00 (K202호)
- 제1발표 : 화엄경 계율의 현대적 조명
좌장 : 차차석(동국대)
발표 : 권탄준(금강대)
토론 : 석길암(외국어대)
- 제2발표 : 천태교단 계율의 현대적 조명
좌장 : 차차석(동국대)
발표 : 최기표(금강대)
토론 : 이병욱(고려대)
- 제3발표 : 계율과 청규의 관계에서 본 현대 한국의 '선원청규'
좌장 : 종호스님(동국대)
발표 : 해원스님(동국대)
토론 : 백도수(동국대)
- 제4발표 : 정토교 계율의 현대적 조명
좌장 : 종호스님(동국대)
발표 : 강동균(동아대)
토론 : 김명우(동아대)

불교학과 100년제

동국대학교 건학100년과 불교학과 창설 100주년을 맞아 '불교학과 100년과 한국불교'라는 주제의 기념행사를 열고자 합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00년과 한국불교
- 일시 : 2006년 4월 7일(금) 14:00-18:30
- 장소 : 동국대학교 문화관 그릴
- 주최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 불교학과 (서울, 경주) / 대학원 불교학과 / 불교학과 학생회(서울, 경주) / 대학원 불교학과 학생회
-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 연락처 : (Tel) 02-2260-3835 (동국대 교수회관 120호 김용표 교수연구실)

우리는 동국가족

올해로 동국 건학 100주년입니다. 100년 동안 '동국'을 통해 맺어진 수많은 인연들의 이야기를 우리신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정겨운 인연들의 소식을 전해주세요. 소개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편집부 02-2260-3491 / dgupress@dongguk.edu

어릴적부터 드나들던 늘 내집같은 학교



조준형 교수

자라고, 배우고, 이제는 가르치는 곳. 너무나 일상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곳.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곳에 있었기에,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 마치 '중력'과 같은 곳. 조준형(식품생명공학) 교수에게 우리학교는 그런 곳이다.

학교는 언제나 그에게 그 자체로서 마음이 편한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집안을 지탱했던 원천적인 힘도 우리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 고맙기도 하고..."

조 교수의 아버지인 조병찬 동문은 우리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생명자원산업융합학과의 교수를 지내 지난 2004년 퇴임한 명예교수이다. 또한 어머니 이마자 동문도 우리학교 국문학과를 1967년 졸업했다. 조 교수의 동생들인 조소영 동문과 조제형 동문 역시 각각 우리학교 동양학과 88학번, 불교미술학과 91학번이다. 조 교수의 네 가족이 모두 우리학교 출신인 것이다.

조 교수의 부모님은 우리학교 재학 중 만나 좋은 만남을 갖게 됐다. "코흘리개 때부터 학교에 왔다갔다해서 그런지, 학교가 '우리집' 같았다"고 한다. "어름에는 동생들과 장충수영장에서 살다시피 했다"며 즐거웠던 그 때를 떠올리는 조 교수. 대입 때도 '내 집 간다'는 생각으로 부모님, 선생님들과 별 실랑이 없이 우리학교를 선택했다고 한다. 그 집에서는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지냈을 것이라고.

그러나 부모님과 한울타리에서 지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제약이 많은 일이었다. "사실 지금까지도 학교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봐서 내 자신을 낮춰야 할 때가 많다"고 한다. 조 교수는 "학창시절, 정치집회를 구경하거나 쉬는 시



지난 92년, 조 교수가 석사학위를, 여동생 조소영 동문이 학사학위를 받은 기념으로 함께 찍은 가족사진.

간에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할 때, 아버지와 마주쳐서 난감할 때가 많았다"며 속스러운 듯 웃는다.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로서보다, 교수와 학생으로서 다루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학교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푸닥거리했다"며 "새벽까지도 의견대립이 계속돼 어머니께서 피곤할 때가 많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조 교수는 오히려 이런 부딪침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쉬워진 것 같다고 한다. "사제간이나 선후배간이나 서로에 대한 애정만 있다면, 갈등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며 "윗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당부한다.

조 교수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7년 만에 학교에 돌아왔다고 한다. "학교의 울타리를 떠나 생활해 보니, 동국의 존재가 정말 크더라"라고 말하는 조 교수. 졸업을 했다고 학교와의 인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어의 회귀 본능같은 것이 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고. "동문들의 연계가 단단해지도록 학교가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한다. 우리도 것처럼 '동국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학교의 존재감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이야기 동국 100년

전문학교를 향한 움직임

④ 불교고등강숙 시대



당시 학생들의 등교모습.

불교사범학교가 발족한 지 4개월 후인 1910년 8월 29일, 일제는 한일합방을 통해 조선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1911년 11월 1일에는 '사립학교규칙'이 시행되어 조선총독부가 사립학교의 개교와 폐교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학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교사범학교는 '각종 학교'로 격하되거나 최악의 경우 폐교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일제는 1911년 9월 1일 조선사찰령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불교를 30본산 체제로 개편하고, 사찰 주지에 대한 인사권을 거머쥐면서 우리 불교를 계속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불교계는 일본불교와의 연합을 추진하려는 보수파와 이에 반대하는 혁신세력이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발족된 30본산 주지회는 1912년 5월 28일에 1차 회의를 열어 모든 본사를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으로 표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불교교육에 관한 문제로 함께 논의되었다. 이 논의를 바탕으로 주지회 측은 혁신세력을 대표하는 박한영으로 하여금 '고등불교전문강당' 설립에 관한 모든 책임을 위임하게 된다.

이후 박한영을 중심으로 불교사범학교의 뒤를 이을 학교설립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14년 1월에 개최된 주지회 제3차 정기총회에서 '4월부터 불교고등강숙(佛敎高等講塾)을 원흥사에 설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새로 설립될 불교고등강숙의 모든 규약은 명진학교나 불교사범학교의 운영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4월에 문을 연 불교고등강숙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학교 경영진의 일본불교에 대한 인식과 무능한 교육정책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조선불교회'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반발하자 학교 경영진은 30본산에 통문을 돌려 유학생들을 사찰로 귀향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불교고등강숙을 책임지고 있던 박한영에게도 사직을 요구하고, 마침내는 불교고등강숙을 폐쇄해 버리고 말았다. 이에 교사와 학생들은 묵묵히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등전문학교로의 전환을 꿈꾸며 새로이 발족한 불교고등강숙은 개교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불교회를 주도했던 청년 승려들은 향후 불교청년운동의 핵심으로 성장하여 애국애종(愛國愛宗) 운동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용범
소설가·동국 100년사 대표 집필자

총무로의 중심에는 '동국 영화'가 있다!

열린 영화 축전 6일 부터 ... 무료 작품상영 등 불거리 풍성

한국영화의 메카 '총무로'가 활짝 열린다. 건학 100주년을 맞아, '2006 총무로 열린영화 축전'이 6일부터 사흘간 명보극장에서 개최된다. 건학 100주년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총무로 영상문화사업단,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등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동국 영화의 역사, 그리고 미래'와 '총무로와 함께하는 한국영화의 비전', 두 가지 테마로 나뉜다. '동국 영화의 역사, 그리고 미래'에서는 △오프닝 세레머니 △주요 동문영화인 작품상영전 △우수 재학생 작품 상영전 △동국 great honor 헌정 기념식이, '총무로와 함께하는 한국영화의 비전'에서는 △동국 스타 오프닝 △총무로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오프닝 세레머니'에서는 영화영상관련 학과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

고, 또한 풍물 동아리 '한소리'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동국 great honor 헌정 기념식'에서는 한국영화 발전에 큰 공헌을 세운 유현목 동문에게 건학 100주년 기념 감사패를 헌정한다. 이는 토요일 7시에 열리며, 이후 유현목 동문이 감독한 영화 '오발탄'이 상영될 예정이다.

'오프닝'은 동국 영화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만남의 시간으로, photo zone과 tea zone이 운영된다.

여기에는 영화배우 최민식 동문과 '홀리데이'의 감독인 양윤호 동문 등 3-4명의 연예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폐막제인 '총무로 퍼레이드'에서는 동국 영화의 발전을 기념해, 명보극장 인근 호프집을 임대해 동문, 선·후배 간의 격의 없는 만남을 위해 생맥주 파티가 열린 예정이다.

'주요 동문영화인 작품상영전'에서는 △홀리데이(감독=양윤호) △시월애(출연=전지현, 이정재) △귀여워(감독=김수현) △범죄의 재구성(출연=박신양) △말죽거리 잔혹사(감독=유하) △수리(출연=최민식, 한석규) △나의 결혼원정기(감독=황우현, 출연=유준상) △무사(제작=조민환, 감독=김성수) △오발탄(감독=유현목)이 상영될 예정이다.

'우수 재학생 작품상영전'에 '나의 마음 너에게 가 닿길'의 연출로 참여하는 영상대학원의 김성택 군은 "우리학교 재학생과 동문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학교 영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재조명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범 동국 영화인의 친



사진은 영화 '홀리데이'의 한 장면.

목과 화합, 새로운 비전을 펴고, 한국영화 산업을 주도하는 동국 영화인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영화의 중심에서 모두 함께하는 '시민 영화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학교 대내외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동국의 영화'를 알리는 행사를 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2007년도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2학년(00명) 남학생
2.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9. 2. 28 ~ '81. 3. 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3. 13 ~ 4. 25
4.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지원서 / 수능성적 증명서(원본) 각 1부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각 4부
· 필라사진(4 x 5cm) 5매	· 경력사진(4 x 5cm) 5매
· 대학 1학년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매
·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가산점 증명서류 1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2007년도 학군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3. 13 ~ 4. 25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6. 4. 26 ~ 5. 10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5. 11 ~ 5. 24
신원 조 회	2006. 6. 19 ~ 8. 25
최종합격자 발표	2006. 9. 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 9. 1

7. 특 점
 - 장교의 신분으로 전공분야의 실무를 터득할 수 있다
 - 재학기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군사훈련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 전역 후에도 일반 입대자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 장교 기준에 준하는 급여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장기지원시 국내의 민간대학 위탁교육, 미국 등 우방군 군사교육등의 교육혜택이 주어진다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내 02 - 2260 - 8537)

2005 하반기 군 장학생 모집

1. 모집인원 : 2학년(00명) 남학생
2. 지원자격 : 입관일 기준 만 20 ~ 27세 이하의 남자('89. 7. 31 ~ '81. 8. 1일 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3. 13 ~ 4. 25
4.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 지원서(사진첨부 / 서약서 1부)	· 칼라사진 5매(4x5, 탈모 상반신)
· 수능성적 증명서(원정수) 1부	· 재정 보증인 관계서류 : 각 1부
·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신원진술서 A양식 3부
· 대학 2학년은 확인용 성적증명서 1부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3부
· 복무연장지원서 / 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산점 증명서류 1부

5. 선발 방법 / 일정

구 분	2007년도 학군사관
지원서 교부 / 접수	2006. 3. 13 ~ 4. 25
체력검정 / 인성검사	2006. 4. 26 ~ 5. 10
신체검사 / 면접평가	2006. 5. 11 ~ 5. 24
신원 조 회	2006. 6. 19 ~ 8. 25
최종합격자 발표	2006. 9. 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6. 9. 1

7. 특 점
 - 학군 후보생 선발시 우대 (지원시 "가"점 부여)
 -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확보조비 지급(연2회 등록금 실비 전액 지급)
 - 입관 / 입대시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 보직 활용
 - 국내의 민간대학원 석·박사 취득 기회 부여(장기 복무시)
 - 우방국의 선진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고급 지휘관으로 성장할수 있음
 - 기존자 군속소 지원
 - 전국 유명호텔 및 콘도 이용 : 휴가, 출장시로 이용 가능
 -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 (대기업체 채용 우대)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내 02 - 2260 - 8537)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02)2260-3483~4 Fax.02)2268-7851



토양생물학

이민용 지음
2006/ 4x6배판/ 418면/ 25,000원
ISBN 89-7801-173-X 93470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구상에서 삶의 터전으로 땅에서 생산된 산물을 이용하여 식물로 먹고, 병이 나면 치료제를 생산하기도 하며, 컴퓨터를 찾거나 설계하는 장소로 땅을 갈고 필요한 산물을 얻고 살아왔다.

문화와 문명,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에는 토양에 대한 관심과 열려가 많지 않았으나, 급속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는 급기야 토양자원의 부족은 물론, 오염으로 인한 공해가 발생하고 이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질의 생산자인 토양이 점차 병들게 되어, 여기에 더불어 사는 인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갖가지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범식을 떠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절박해지는 우려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무수하다는 미생물에서 식물 및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는 시점이었다.

이 책에서는 토양의 생성, 물리 화학적 특성, 토양의 생성과정과 조사, 토양의 분류, 유기물의 원천과 토양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생물이 살면서 분비하는 물질의 종류와 이 물질이 다른 생물에 미치는 영향, 뿌리 주변에 모여 사는 생물의 종류와 특성, 특정물질의 종류와 분해과정, 토양 내에는 어떤 효소가 있으며, 이 효소들이 어떻게 토양 생물의 동적 관계가 이루어 지며, 또 농업에 있어 토양 생물이 주는 이점을 알게 하고 합리적 농산물의 생산증대를 모색하는 방법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토양생물학의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 방법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읽어도 되는 내용을 다루고, 생물학과 관련학생들에게 토양생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전문과정의 교과서로 이용하게 개발하였으며, 또한 토양관련 전문학자나 연구자들도 연구에 참고가 될 부분 등을 폭넓게 다루고자 하였다.

열린글터

명진관, 학교의 대표건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물, 학교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본관으로 오해하는 곳 바로 명진관이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면면이 동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명진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몹시 힘든 아쉬움이 있어 몇 가지 말하고자 한다.

첫째, 건물 내 동선의 비효율성이다. 명진관이 몇 층일까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학생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만큼

명진관의 구조는 독특하다. 명진관에서 수업을 들은 학생이 우체국 또는 과방을 가려면 우선 건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만약 이 학생이 우체국을 들른 후에 국문과방으로 가려고 한다면 건물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한다.

둘째, 건물 내 편의시설의 부족이다. 명진관에는 화장실이 남녀 각 하나씩뿐이다. 강의실이 멀고 연강일 경우 화장실 다녀올 시간도 없을 정도이다. 컴퓨터실의 경우 크거나 컴퓨터의 대수가 타 단과대 한 학과의 실습실 정도에 불과하다. 문과대 특성상

역시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건물의 구조상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작이 반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간다면 분명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학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명진관이 위치, 외향상으로 만이 아닌 탄탄한 내실을 갖춘 진정한 학교의 대표건물이 되기를 바란다.

권태웅(문과대 국문4)

함께 하는 봄맞이 '과방 대청소'

모든 것이 싱그러운 계절, 봄이 어느덧 우리 곁에 다시 찾아왔다. 학교 여기저기에 개나리꽃들이 지난 꽃샘추위를 날려버리고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새내기들도 우리 곁으로 찾아와 신선함이 가득한 얼굴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우리가 새내기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는 학교 학생회실, 즉, 과방이라 일컫는 장소이다. 아직까지 학교생활에 익숙하지 못해 갈 곳 없는 새내기들에게 과방이라는 장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은 장소가 되고, 재학생들에게도 공간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로 적합한 공간이 된다.

과방은 매일 수십 명이 들락

거리며, 우리들에게 놀이 공간, 식사 공간, 학습 공간, 심지어는 하숙 공간까지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과방에 문제점을 하나 지적할 수가 있다. 바로 청결성의 문제이다. 청소를 하고 또 해도 워낙 여러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까닭에 금세 더러워지고 만다. 이는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새내기들에게도 오고 싶지 않은 과방으로 인식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방을 이용할 때 깨끗이 이용하길 당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걸 보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로가 조금씩만 인식해서 자

기가 남긴 흔적들만이라도 치우고 갈 수 있다면 보다 청결한 과방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과방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고 있다. 이제는 다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작은 실천력 하나 없이 어떻게 앞날을 준비해 나가는 대학생이라 할 수 있겠는가? 과방은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이다. 어쩌면 자기 방보다도 깨끗이 써야 할 의무가 있을 지도 모른다.

이제 완전한 봄이다. 봄을 맞이해 가정집에서 대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들도 봄을 맞이해 '과방 대청소'를 해보는 건 어떨까.

박경식(이과대 수2)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때

최근 국민소득 1만 불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내수 시장이 협소하고 자본이 부족하여 해외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외적 요인에 의해 경제체제가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과거에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어

면서 성장우위의 전략을 채택하였다. 보다 빠른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소수의 재벌 위주 정책들을 세웠으나, 그 결과는 재벌 기업들에게 내적인 경영 불투명성을, 중소기업들에게 부실한 구조를 낳았다. 여기에 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경제 불황에 대응할 수 없는 한국 경제의 비정상적인 체질이 합쳐지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의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

다. 그러므로 시장 규율을 세워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주고 투자의 욕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윤리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사회 내부의 여러 의견들을 모아야 한다. 과거의 재벌 중심과 수출을 증대하는 방식이 아닌 기술을 혁신시켜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것이다.

김형환(사과대 정외2)



학생논단

진혁진 사과대 신방4

5·31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선거를 앞두고 최근 언론에서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기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성추문,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에 이는 해인, 서울 시장의 황제 테니스 문제, 그리고 최근 김재택 로비 의혹에 따른 글로벌비의 비자금 사건에 이르기까지.

각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기사들과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개연성을 물론 선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민선 4기인 5·31 지방선거가 앞둔 상황에

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넘쳐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기사들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제는 접어두고, 중요한 점은 왜 지금 시기에 이러한 정치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각각의 신문사는 이러한 문제를 계속 1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하고 있는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요점부터 말하자면 매년 주요 선거 기간마다 이러한 정치 폭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문은 시기마다 그런 기사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1면에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과연 의원 성추문, 총리의 골프 등의 이야기가 현실정치에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는 것일까.

이치와 논리를 따져보자면 지방 선거를 목전에 앞둔 지금 시점에 필요한 신문보도 내용은 지방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선거에 대한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해 질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사가 신문지상에 보도되고는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정치권의 폭로성 기사와 주객전도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뒤로 밀려나고, 정치권 폭

로성 기사 내용이 신문 1면을 장식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필자 개인만의 생각일까.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생산 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중(公衆)은 옥석을 가린 질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옥석을 가려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단연 대중매체일 수밖에 없다. 또한 공중(公衆)은 더 이상 무지한 대중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을 넘어선 진실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사 내용들이면에 있는 진실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고, 단순히 특정 당을 비방하는 식의 기사만 지속적으로 보도된다면, 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장(醬)'은 오래될수록 곱팡이로 인해 겉모습이 흉하지만 그 속에 깊은 맛을 간직한다. 장의 깊은 맛을 모르는 이들은 흉한 겉모습만 보고 눈살을 찌푸리곤 한다. 흠집내기, 정치권 비방 일색인 오늘날 언론의 보도 형태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장의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 지금 신문들에게는 '곱팡이'를 걷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독자 사진첩



PM 7:00 만해관 ... 해가 질 무렵 은은한 광선을 받으며 서있는 학교건물을 주의깊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나 익숙하기에 그냥 지나쳐버린 무심함을 버리고 한 번 교내건물을 찾아가서 시선을 던져주세요.

- 윤종인 (사회06졸)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만평, 4대 분량의 글 등을 여론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보리소

김. 형. 곤

'백 가지 비유'라는 경전이 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백 개의 풍자(諷刺)하게 말하면 98개로 살짝 비튼 경이다. 이 경을 편찬한 상가세나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글을 지으면서 실없이 우스개말을 마구 섞어서 진실한 말을 그린 것 같지만 이치에 맞는지를 잘 따져보지 않았다. 쓰고 독한 약을 달콤한 꿀에 섞는 것과 같고, 명약(名藥)을 나뭇잎(우스개말)에 쓴 것과 같다. 달콤한 꿀은 독한 약을 몸에 부담가지 않게 하는 장치이고, 약을 상처에 바른 뒤에 나뭇잎은 버려야 하니 진리를 감싼 실없는 웃음을 잘 헤아려서 진리를 취해야만 하리라."

위선과 부조리가 바글바글한 세상을 향한 선지자들의 일같은 입에 쓰다. 성현의 가르침일랑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다.

몸에 좋은 약은 왜 그리 입에 써야만 하는 걸까? 입과 목을 넘어 갈 때까지 만이라도 달콤하면 좀 안 되는 것일까? 부처님 말씀조차도 저렇게 우스개소리에 포장되어야 중생들에게 들어 먹히는 판이다. 그러지 않아도 잘못 돌아가는 세상에 욕지기가 나는데 삼켜야 할 약마저 쓰기만 하다면 돈 없고 배고고 권력 없는 우리는 너무 절망적이지 않을까.

고(故) 김형곤-서울 퍼런 군사정권 시절, 사람들은 그의 세태 풍자 코메디를 보며 맘껏 깔깔 웃어댔다. 세태를 고발하던 그가 그 한 사람 뿐이었을까 마는 부조리한 속에서도 그가 이 시대에 안겨 준 선물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심장이 굳어버리고 이성이 마비되어 뭐가 선하고 바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이 세상, 바른 길을 보여주는 성인군자의 말씀에 읊필하는 양심조차 먹통이 되어 버린 이 세상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웃음으로 위로하고 풍자로 치유하려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웃음이라는 나뭇잎에 싸인 명약을 먹고 그 시절을 버텨오지 않았는가 말이다.

이 미령
역경원 역경위원

각종 공모전 지원 안내

- 1. 지원 대상 공모전**
 - 공모전 입상자에게 "채용 시 우대" 등 취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혜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2005. 5. 1이후 시행되는 공모전부터 지원예정.
 - 2. 신청기한** : 공모전 제출 기한과 동일
 - 공모전 제출 기한 이전에 진로교육상담팀에 반드시 참가 신청서 제출해야 함.
 - 3. 제출서류**
 - 공모전 참가 신청서/참가 결과 보고서 제출(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 4. 지원내용**
 - (1) 학생지원금 : 참가 학생 1인당 30,000원(문화상품권) 지급
 - 공모전 응모 및 결과 발표 후 참가 결과 보고서와 참가확인서제출자에 한하여 지급함
 - 별도의 평가 없이 참가 결과 보고서 제출자 전원에게 지급
 - (2) 지도교수지원금 : 최소 100,000원 - 최고 300,000원
 - 단순 지도가 아닌 지도교수 참가가 공모전 참가 필수 조건일 경우에 한함

단, 공모전 지도 인원이 3인 이상이고, 지도교수 지도 보고서(양식 별첨)를 제출한 경우도 지원가능

 - 참가 인원/공모전 성격(채용 시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결정
 - (3) 입상자(팀)포상금 : 개인 - 50,000원, 팀 - 100,000원
- 5. 기타 문의사항은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39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동국인 시간활용 기사 눈길 긍정적인 모습에 자부심 느껴

지난호 동대신문에서 가장 흥미있던 기사는 기획면의 '2005년 동국인의 시간 활용'이었다. 평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곤 했는데 이를 가상 기사로 재치있게 표현한 것이 재미있었다. 더욱이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통계조사 자료를 지면에 활용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또한 우리학교 재학생들의 '한글교실' 운영과 100주년 서포터즈 관련 기사에서는 따뜻하면서도 역동적인 동국인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는 동국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한편 등록금 협상 진행 과정은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함에도 신속하게 정보를 얻기 힘든 만큼 신문에서 이를 크게 다룬 점이 좋았다. 총학생회와 학교 관계자의 의견과 진행 일정 등 학생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나 의문점 등을 기사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해주어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점이 유익했다.

그러나 지난호를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편집이 불안정한 느낌을 받았다. 1면의 사진 기사에서는 동국인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지만 사진 자체가 기사들에 부딪혀 잘린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크기도 작아 답답해 보였다. 신문에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이들의 배치가 등성등성해 오히려 산만한 느낌을 주어 아쉬웠다.

지난호 기사에서는 수업 자료를 이용해 동국인의 이야기를 풀어나간 점과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내용면에서 충실했다.

앞으로도 동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사와 신속한 정보를 동대신문에 기대해본다.

이진아(사과대 신방2)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원 향
월 (4/3)	손민두국 (2000)	해물경단백반 (1800)	된장찌개 (3200)	양지떡국 (2300)
	오징어달걀 (2000)	삼겹살김치달걀 (2000)	떡볶이불고기 (3800)	오므라이스정식 (2900)
	떡양념치킨 (2000)	콩나물비빔국수채널리드 (2000)	닭갈비 (3500)	쇠고기두부전골 (2900)
화 (4/4)	사골우거지탕 (1800)	닭개장 (2000)	된장찌개 (3200)	쇠고기콩나물국 (2000)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떡볶고기 (2000)	만두전골 (3500)	첼루페해물국수(2900)
	오삼불고기 (2000)	돈육구구미강정 (2000)	이면수쿠이 (3500)	시골밥상정식 (2800)
수 (4/5)	어묵매운탕 (2000)	햄숙어찌개 (2000)	된장찌개 (3200)	탕국 (2300)
	함박스튜 (2000)	참치볶음밥 (1800)	돈가스 (3500)	순살돈가스정식 (2900)
	얼무비빔밥 (2000)	닭조림 (2000)	새싹비빔밥 (3500)	우거지갈비탕 (2800)
목 (4/6)	닭곰탕 (2000)	쇠고기무국백반(해미) (2000)	된장찌개 (3200)	된장찌개 (2000)
	참치김치달걀 (2000)	오징어콩나물찜 (2000)	낙지들술밥 (3800)	떡볶이고추장불고기 (2900)
	잡채&오징어무국 (2000)	김치볶음밥 (1800)	매운돈갈비찜 (3800)	첼판스해물볶음밥 (2900)
금 (4/7)	제육비빔밥 (2000)	돈육찌개&생선가스 (2000)	된장찌개 (3200)	사골우거지탕 (2500)
	새우가스 (2500)	쇠고기케라라이스 (2000)	꼬리곰탕 (5000)	알밤정식 (2900)
	치킨볶음밥 (1800)	불낙볶음 (2000)	두부김치 (3500)	첼판없는닭갈비 (2900)

달하나 천강에

계획적인 시간관리



송 일 호
사과대 경제학과 교수

희망주는 열정적인 무대여, 다시 한번!

28일 무료공연 통해 침체된 대학로 소극장 부활 꿈꿔

대학로가 복적이다.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의 대학로 한 소극장. 70여석 되는 좌석이 사람들로 어느새 빼곡히 들어찼다. 어둑어둑한 가운데 정적을 깨고 배우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능청스럽고 재치 있는 그 입담에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무대를 향했다.

대학로 일대의 29개 소극장들이 '세계 연극의 날' (27일)을 기념해 지난 28일 무료공연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연극협회의 한 관계자는 "연극이 관객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전반적으로 침체된 대학로로 관객들의 발걸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반면 연극인 유순웅 씨는 이번 행사가 "관심은 유도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평가해라도 유료관람문화를 정착시키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무료공연은 취지에 어느 정도 부응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주최 측은 사전에 좋은 공연 안내소에서 선착순으로 티켓을 교부했는데 진행상의 문제가 있었다. 천정해 씨(21)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리는 바람에 시간이 지연되고 선택권이 없었으며 지나치게 빨리 마감되고 말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시각자로 200여개

극단 중 불과 30여개 극단만 참여한 점 역시 되짚어 보아야 한다.

공연예술의 메카이자 젊음과 낭만을 지향하는 대학로. 오래전부터 대학로는 소극장이 즐비한 연극의 상징이자 문화의 거리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점차 대학로에서 문화가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극연출가 송윤석 씨는 "현재의 대학로는 순수연극과 상업연극이 전쟁 중"이라며 상업화에 쫓겨 대학로의 세태를 꼬집었다. 자본력이 뒷받침된 대규모 극장과 개그 공연 전용 극장의 관객몰이는 기존의 극단들이 설 자리마저 앗아가고 있다.

소극장 대표로 상승과 유료관객 감소도 영세 극단들이 재정난에 허덕이게 하는 요인이다. 연극인들은 대관료와 인건비에 비해 수입이 지나치게 적기 때문에 빚을 떠안는 경우가 다반사다. 오죽하면 황간에는 '소극장 주인들이 돈을 다 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한편, 공연관람료 일부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사랑티켓' 제도와 '에매할인제도' 등은 관객층 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이에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실질적인 유료관객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영화인 하하나

씨는 "공연은 으레 무료로 관람하는 것이라 여기는 관객층의 문화의식부족"은 "관객 수와 수입이 비례 안하는 빛 좋은 개살구 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각 극단들은 차별화된 홍보와 이벤트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극장만의 이점인 현장감과 거리감을 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로 임기수 씨(26)는 "다양한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학로가 다시 주목해졌다. 관객들을 숨죽이게 하고 때로는 호탕하게 웃게 만든 연극이 막을 내렸다. 어둠너머로, 장시간 배우가 보여준 진솔하고도 열정적인 모습 너머로, 관객들은 희망을 찾는다.

대학로가 한창 '잘 나갔다'던 90년대 초반의 활기찬 분위기를 하루 빨리 되찾기를 바란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취업지원센터 활용Tip

취업준비의 지름길 '공모전'을 정복하라!

취업이라는 합격문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공모전이다. 학년별로 적당한 공모전을 미리 파악해 두면 어떨까? 자신에게 맞는 공모전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훨씬 쉽고 재미있게 다양한 공모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1학년=각종 현상공모전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공모전이 어떤 취지로 개최되고 있으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해해 두면 공모전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것이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시즌에 가벼운 공모전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다.

△추천 공모전=산업자원부 커뮤니티 리브 공모전, 에세이 공모전, 국정원 나라사랑 온라인공모전, 파카만년필 수필공모전, 싱긋에이 작 품공모전 등.

▲2학년=공모전 현황과 종류를 파악, 기업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보는 것이 좋다. 관심분야 공모전을 체험하거나 1~3회 정도의 신생 공모전을 노력볼 만하다.

또한 비교적 무난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액션형 공모전들이다. 여름방학 때에 다양한 언론사의 학생기자나 리포터, 모니터 활동, 체험단 등에 문을 두드려 보라. 이외에 아이디어공모전이나 문화행사의 자원봉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경험을 축적해 간다.

△추천 공모전=SK텔레콤 TTL Tomorrow Creator, 경기문화재단 대학생 평화대장정, 사프리얼티 대학생 한국역사문화 답사단, 스와치 대학생마케터, 하이트 대학생 객원마케터 등.

▲3학년=수상권에 들도록 노력하라. 3학년

여름과 겨울은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가늠해 볼 찬스의 시기로 설정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팀을 구성해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참여하며 분기 혹은 2달에 한번 꼴로 참여해 보길 권한다. 물론 공모전 도전 과정에서 철저히 공모전 전략자료를 축적해가고 자기 전문분야와 공모전 분야가 잘 매치될 수 있도록 한다.

방학 때는 특히 대형 참여형 공모전에 적극 도전해 본다. 해외 체험형, 전략형 참여 공모전을 추천한다.

△추천 공모전=각종 공사에서 실시하는 광고공모전, 매경 대학생 경제논문 공모전, 소니 코리아 논문/디자인 공모전, 대학생 통일논문공모전, 동아제약 국토대장정, SK텔레콤 그린맵 대장정 등.

▲4학년=1년간 진행되는 공모전 중 인턴기회를 주거나 취업특전이 있는 공모전 리스트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노력해보아야 한다. 주최사가 대기업이거나 공기업일 때 취업특전을 주는 곳이 의외로 많다. 경제나 마케팅 분야에 대학생 공모전 중 취업특전이 있는 곳이 최소 50여 개가 넘는다.

△추천 공모전=LG글로벌 챌린저, 현대자동차마케팅 포럼,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연구논문 및 체험리포트 공모전, 금호타이어 대학생 광고공모전, 포스코연구논문 공모전, 교보생명 동북아대장정, 육선 전국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등.

* 각종 공모전 지원과 관련해서는 6번 하단 광고 참조
박 선 희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새 학기가 되면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새로 만나게 될 학생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 학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학생들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새로운 각오로 수업에 임해서 학점관리도 잘 하며 영어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가능하면 졸업 전에 자격증이라도 하나 정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성공여부는 계획적인 시간 관리에 달려있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 자신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쪼개 쓰는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시간관리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제1단계로 자신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계획도 필요없기 때문이다. 목표를 정할 때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 물론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안 될 것이다.

제2단계로 우선순위에 맞도록 시간을 할당해야 한다. 차순위인 일을 위해 우선순위를 포기하며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위해 다른 것을 모두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간할당은 계획을 성사시키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 제3단계는 계획의 진행에 대한 철저한 확인작업이다. 이미 세워진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은 계획을 세우는 일보다 더욱 더 중요할 수 있다. 수학문제를 풀 다음 정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산을 하는 작업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이 확인단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행되지 못한 계획은 단지 계획으로만 끝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철저한 확인작업은 미처 이행하지 못한 계획을 마무리짓게 해주는 도움이 역할을 할 것이다. 제3단계 확인과정을 거친 후 잘못된 시간할당이라든지 목표의 수정 등은 피드백과정을 통해 반영될 것이다.

각 단계에서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것이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을 할당하는 기준과 계획의 실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단, 이 3단계과정은 모두 기록되어져야 한다는 불편함이 뒤따른다.

필자의 경우 지난 20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동일한 다이어리에 매년, 매달 그리고 매일 시간대별로 해야 될 일과 그 결과를 체크해 왔고, 이러한 습관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자부한다. 어떤 경우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떤 경우는 시행착오를 피하게 하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간관리를 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정보가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이 태어나 활동하는 시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청년시절을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기 위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슬기로운 방법들을 개발해 보기를 권해본다.